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2분기 상승세를 기록한 '갭'

FASHION 2분기 순매출 5% 증가한 37억 달러 기록
갭, 2분기 실적 상승세...반등 성공⁽¹⁾

갭(Gap)이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고 우수한 2분기 실적을 발표, 반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갭은 8월 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소비자들이 ‘올드 네이비(Old Navy)’와 ‘갭(Gap)’ 브랜드의 최신 유행 의류를 찾는 경향을 보이며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갭의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해 22.8달러로 마감했다. 갭의 2분기 순매출은 1년 전보다 5% 증가한 37억 달러(한화 약 4조 9547억원)를 기록했으며

브랜드별로는 올드 네이비는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갭은 3% 성장세를 기록했다. 다만 바나나 리퍼블릭과 아틀레타는 아직 더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갭의 신임 CEO 리처드 딕슨(Richard Dickson)의 개편이 효과를 내었다는 평가다. 리처드 딕슨은 갭, 바나나 리퍼블릭 등의 분위기를 더욱 신선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리프레시를 단행하며, 브랜드 분위기 반전을 꾀하

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최신 유행 스타일에 지출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모닝스타(Morningstar)의 분석가 데이비드 스와츠는 “갭이 이전보다 더 잘 관리되고 있다. 네 개의 모든 브랜드가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새로운 경영진 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Coperni



Phillip Lim

FASHION

25년 리조트룩, 생생하고 화려한 프린트물 인기⁽²⁾

강력한 프레피 트렌드로 스트라이프 주목

내년 여름 리조트 컬렉션을 위한 프린트와 패턴을 선택이 중요해졌다. 프린트 제조 업체 Vogzy는 내년 여름에는 생생하고 화려한 프린트물이 강세로 특히 레오파드, 뱀 등 동물 프린트의 인기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프레피 트렌드의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스트라이프 패턴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다양한 굵기와 컬러 조합으로 여러 컬렉션에서 제안되고 있다.

Vogzy는 주요 프린트물로 △남성복 셔츠 줄무늬를 활용한 여성스러운 실루엣 △넓은 스트라이프 패턴 △그라데이션 컬러 △화려한 꽃 패턴을 추천했다.

샌디 리앙(Sandy Liang)은 핑크와 화이트 컬러를 매치시킨 스트라이프 셔츠와 넥타이를, 로제 애슬린(Rosie Assoulin)은 블루&화이트 스트라이프 코트 소재의 레이어 스트랩리스 드레스를 내년 여름 리조트룩으로 제안했다. 3.1 필립림(3.1 Phillip Lim) 역시 고어스카트 위에 블루&화이트 스트라이프 롱 코트 셔츠를 매

치시켰고, 필로소피(Philosophy di Lorenzo Serafini)는 블루&화이트 컬러의 코튼 원피스에 브라 탑과 숏팬츠를 매치했다.

또한 샤넬(CHANEL)은 와이드 스트라이프 패턴의 니트와 크로세 소재의 미니 드레스를 공개했고, 코페르니(Coperni)는 네이비 & 그린 와이드 스트라이프 패턴의 홀터넥 드레스를 내년 여름 리조트룩으로 제안했다.



Web 3.0 게임 콘텐츠를 개발한 마크제이콥스

FASHION TECH

마크제이콥스, Web 3.0 세상으로 탐험⁽³⁾

2000년대 스타일의 가상 게임 제작

마크제이콥스(Marc Jacobs)가 2024년 가을 컬렉션 출시를 기념하여 마이애미의 크리에이티브 IP 스튜디오 Edgrrd와 협력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Edgrrd는 과거 더위켄드, 나이키, 트래비스 스콧, 김카사디안 등과 작업한 경력이 있는 스튜디오로, 이번 협업에서는 마크제이콥스 디자이너의 가상 복제품을 중심으로 한 2000년대 스타일의 게임을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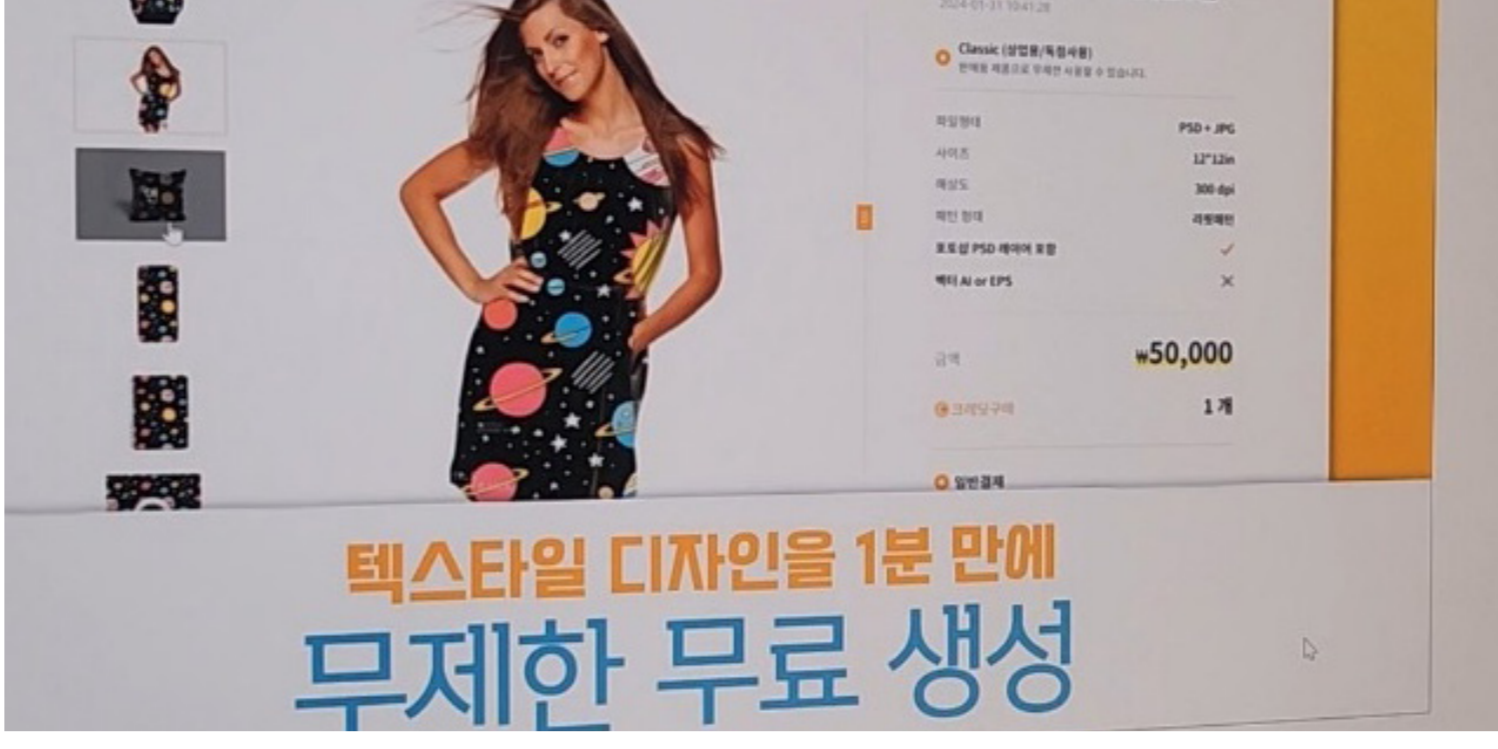
브랜드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비디오에서는 디지털 마크 제이콥스 캐릭터를 버블 드레스, 얼룩말 무늬 바디콘, 표백된 데님 코디 등 다양한 스타일로 꾸미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1만여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마크제이콥스 디지털에 익숙한 젠지와 알파 세대를 타겟으로 독특하고 로파이(Lofi)한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마크제이콥스는 스냅챗을 통해 소통을 확

대하고, 게임 ‘Animal Crossing’과 협력해 의류를 디지털화했으며 2021년에는 뷰티 대기업 코티와 협력하여 데이지 향수를 AR 기반 인스타그램 필터로 가상 세계에 선보이기도 했다. 올해는 가상 게임과 캐릭터로 Web 3.0 플랫폼에서 캠페인 광고를 제작하는 등 브랜드의 창의적인 경계를 넓혀가고 있다.



생성 AI 서비스를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인뱅크

FASHION TECH

텍스타일디자인뱅크, AI로 원하는 디자인 똑딱!⁽⁴⁾

AI 텍스타일 디자인 제작 서비스 런칭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텍스타일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텍스타일디자인뱅크(Textile Design Bank)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규격에 맞춰 업로드하면 30초에서 1분 안에 텍스타일 디자인을 생성하는 웹 플랫폼이다.

생성된 디자인은 2D 이미지와 3D 모델링으로 적용 시안을 확인할 수 있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결제 후 JPG나 PSD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

할 수 있고, 포토샵 파일의 경우 레이어로 구성돼 있어 위치, 색상 등을 개별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텍스타일디자인뱅크는 전세계 83개국의 텍스타일 디자인 수출 중개 플랫폼으로 시작해 이번 에 AI 생성 기술까지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디자인 창의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했다. 1분 만에 무료로 무제한 디자인을 생성해볼 수 있고, 원하는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 제작 비용보다 10배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 및 수정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이 연간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약 86% 이상 절감하여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텍스타일 디자인 뱅크는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복잡하고 비싼 해외 저작권 등록을 쉽고 합리적인 가격에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미국 저작권 등록 AI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텍시믹스와 협업한 효성타엔씨 PIS 전시부스

TEXTILE

효성타엔씨, 텍시믹스와 한·중 협업으로 시너지⁽⁵⁾

러닝 컨셉으로 협업 제품 전시

효성타엔씨가 미디어커머스가기업 브랜드 엑스크로케이션의 액티브웨어 ‘텍시믹스(XEXYMIX)’와 손잡고 한·중 시장을 동시 공략했다.

두 회사는 지난 8월 국내 최대 섬유 전시회 프리뷰인서울 2024와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섬유전시회에 잇따라 참가하며 국내 소재의 우수성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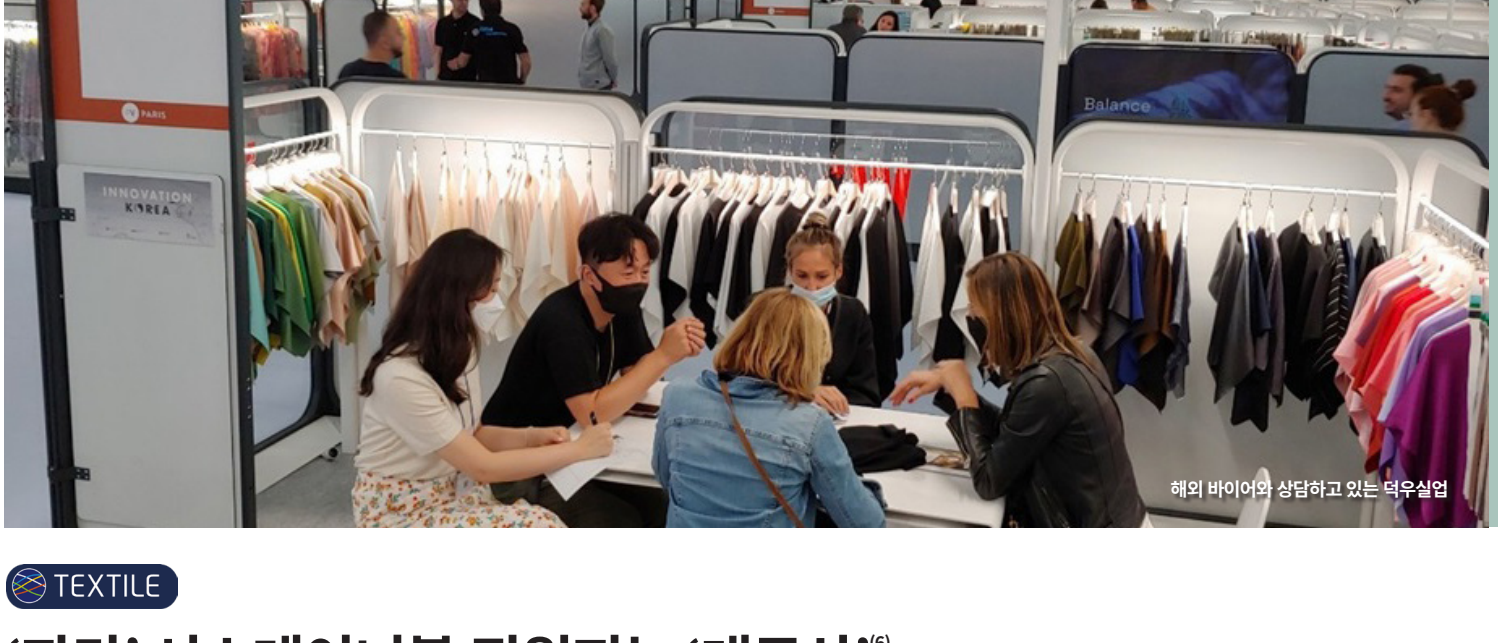
이번 협업은 국내 우수 소재 기업과 글로벌 마켓으로 확장하고 있는 애슬레저 브랜드의

공동 제품 기획을 통해 기능성 소재의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평가다.

텍시믹스는 효성타엔씨 부스 내 단독 공간에서 러닝을 컨셉으로 한 다양한 협업제품을 전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운동에 최적화된 탄탄한 착용감이 강점인 크레오라 액티브를 적용한 ‘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로고 밴딩 쇼츠 4부’, 자외선차단과 흡한속건 기능을 지닌 아스킨 소재의 ‘RX 스피드업 메쉬 숏슬리브’, 소취 기능이 있는 크레오라 프레

시가 적용된 ‘프레스리 드라이 크루삭스’ 삭스 4종이 전시됐다.

PIS에서는 애슬레저 시장이 급성장 중인 중국, 대만, 몽골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아시아지역 바이어 및 참관객들도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역시 유럽 바이어까지 다양한 고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해의 바이어를 상담하고 있는 덕우산업

TEXTILE

‘자라’ 서스테이너블 진원지는 ‘대구산’⁽⁶⁾

100% 리사이클 원단 수출사 ‘자라’ 메인 공급처 TOP10

‘자라’, ‘망고’, ‘H&M’ 등 패스트패션의 서스테이너블 전략의 든든한 후원자들이 대구 섬유 업체 내에서 조사됐다.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리사이클 소재 비중을 높이는 것인데 이들 원단 공급처 상당수가 ‘대구산’ 원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자라의 글로벌 원단 공급처 ‘톱 10’에 들어갈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대구산’ 원단은 가격대가 중국산보다 다소 높지만 염색 기술과 감량공정에서 SPA 브랜드로부터

더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대구경북 섬유기업 중 덕우산업·동국섬유·R&D에이케이텍스타일·성안머티리얼스·호신섬유·하나섬유 등이 스페인의 자라, 망고, 스페인의 H&M 등 굴지의 해외 SPA브랜드 업체에 원단을 직수출하고 있다.

동국섬유는 2014년부터 자라·망고 브랜드와 직수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자라’ 원단 공급처 중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올해는

100% 리사이클 원사로 된 원단 개발에 성공, 자라에 대량 공급하고 있다.

페트병 리사이클을 친환경 원사를 이용한 원단을 생산하는 덕우산업도 자라·망고·H&M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대형 바이어와 10여년째 거래하고 있다.

우수 기업들의 선전에 비해 지역 섬유산업은 분기마다 수출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BOF: Gap's Surprise Earnings Release Shows Strong Second Quarter, 24년 8월 29일
2. FASHIONUNITED, Resort 25 Key print and pattern trends, 24년 8월 30일
3. JingDaily, 'Inside Marc Jacobs' Web3 gamble, 24년 9월 1일
4. 산갈일보, '텍스타일 디자인', AI가 30초 만에 똑딱, 24년 8월 21일
5. 영남일보, 텍시믹스, '프리뷰인서울 2024' 참가... "외 바이어 많은 관심", 24년 8월 22일
6. 해남신문, 글로벌 SPA브랜드 자라(ZARA) 리사이클 의류, 알고보니 '대구산'산, 24년 8월 22일



FABRIC DIVE
Virtual Fabric Business Platform

문의 : 다이텍연구원 소재빅데이터연구소
Tel : 053-350-3734, 3743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